

## 한일시민상호존중선언

내년은 전후 70년,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를 한 지 반세기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한일관계는 매우 큰 곤란에 빠져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아베신조 총리, 2013년 2월에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번도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일본에 본부를 둔 NGO 피스보트와 한국의 환경재단은 올해 10월말부터 10일간에 걸쳐 한국, 대만을 향해하는 크루즈 「제 7회 피스&그린보트」를 한일 양쪽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최근 아베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참배가 이어지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는 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가의 부정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다케시마를 둘러싼 대립 그리고 작년부터는 일본에서는 재일교리안, 한국인, 중국인을 공격대상으로 한 배외주의행동 「헤이트 스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을 요구하는 권고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 크루즈 중에 어떻게 하면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한일양국 정부와 시민이 다시 한번 상호존중에 기초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호존중이란 상대를 배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세월호침몰사고는 양쪽사회 모두 안전보다 경제이익을 우선시하는 뒤틀린 사회구조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많은 인명을 빼앗은 사건이 아닌가요. 한일양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비극에서 교훈을 진지하게 배우고, 각각 생명을 최우선하는 사회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이 한일상호존중을 촉진하며 더 좋은 관계를 쌓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지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제주도 강정, 오키나와 헤노코 현장을 방문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형태로 밀어붙이는 미군과의 군사동맹강화와 그에 의존하는 양국의 국가안전보장정책을 눈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베정권이 집단적자위권용인등에 의해 형식화를 꾀하려는 일본국헌법 9조의 비군사화의 이념이야말로 생명을 최우선하는 동아시아사회실현 가능성을 열어 지역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크루즈를 함께 하며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눈 한일 시민으로 앞으로 상호존중에 기초해 한일시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할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2014년 11월 7일  
피스보트, 환경재단  
피스&그린보트 2014